

썬7. 함께 만드는 주제 - 언니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겪어온 일이랄지 지금의 체계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까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노동환경, 지원체계, 건강, 동료와의 관계 등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니 일하는 여성에 대해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어줬음 좋겠다. 하는 것들 적어 볼까요. 이루머도 함께 얘기했으면 해요.

-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다> 손님들이 저희를, 돈으로 샀으니까 내가 너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동안은 니가 나한테 비위를 맞춰야해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이런 말 하는 애는 결코 저는 안 받거든요? 캔슬 놓거든요 바로. 저는 할 얘기 다 해요. ‘오빠, 우리도, 나도 하나의 인간이야. 인격체를 갖고 있어. 오빠가 돈을 지불했다고 내가 얼마만큼 나는 요만큼밖에 비위, 오빠한테 존댓말 쓰는 만큼만 해주면 돼? (일동 웃음), 요?! 오빠가 나의 값어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지만 난 하나의 인간이고 난 오빠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야, 나 못해. 나 그 돈 안 벌고 말아. 그냥 가주세요. 그렇게 돈을 지불했지만 그런 좀 비논리적인, 무개념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많죠. 단 몇 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는 나한테 아씨발 막말하면서. 씨발씨발 하면서. 내가 니 비위를 맞춰야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 그 돈 안벌고 말아. 안 벌어도 먹고 살거든. 좀 그런거는 인식을 해주고. 그런데 다니더라도, 손님들 개념 자체를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소주도 지네가 상표 존중하면서 술 따르면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밖에 대하지 못 하느냐 그거죠.

- 내꺼 연결되니까 내꺼. <구매자 적성검사>. 1차적으로 성병검진을 합니다. 통과된 사람들은 2차 시험으로 해가지고, 폭력성과 인성테스트를 거쳐서 탈락된 사람들은 탈락. 그 다음이 존댓말, 인권존중교육을 수료해, 그런 다음에 성구매 자격증 발부. 그런데 언니들의 클레임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사형!(웃음)

-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저 과정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손님

들을 들여보내서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캔슬을 놓을 수 있어요. 넣어줘도.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하고. 단속만 좀 조심하면 되지만 싸이트로 오는데기 때문에.

- 예전에 우리가 일했던데들 보면은 요정 가는 손님있고, 룸살롱 가는 손님있고, 그 두 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마시술소도 있고, 각기 각기 다른, 문화가 변하듯이 업소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정 가는 손님은 아무래도 좀 격식있고, 룸도 룸이 다 룸이 아니야. 1종룸에 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격식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화가 변해지니까 더 퇴폐적이고 더 뇌쇄적으로 변하면 변했지, 절대, 옛날에 비해 뭐 얘기하는, 암전하게 남자들이 변한다- 이런 건 없는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데는 또, 제가 왜 여기서 일을 꾸준히 하게 되냐면 손님들 자체를 술을 많이 만땅 마셨다- 캔슬시키거나 아예 그런 사람은,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가씨가 못 버텨서 나가면 이 운영자가, 업주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선을 긋더라고요.

- <고객을 고를 수 있는 권리> 고객이라 쓴 거는, 정말 고차원의 객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OO 언니 얘기 들으면서 모든 언니들이 OO 언니처럼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아, 그렇진 않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예약을, 그 전에 예약을 다 끝내. 싸이트로 전화해갖고 예약을 하기 때문에. 손님 금방 나가요, 한 시간 타임해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또 손님이 올라와. 어느 때는 너무 힘든 거야. 기계가 된 느낌? 근데 그 손님한테는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돼. 왜냐면 후기를 남겨요, 이 손님들이. 그런 건 편한데, 나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걸 보고 다른 손님들이 오게끔 해야되니까.. (체계가 이렇게 잡혀있는 대신에) 대신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한 손님한테 진짜 못할 짓을 했으면, 그 손님이 거기다 후기를 남기면 난 거기서 매장이 돼서 일을 못하는. 그 세계에서.

- 저도 일할 때 손님 맘에 안 들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통 실장이나 삼촌들이 돈 대신 받아주고. 10분 앉아있었든 5분 앉아있었든. 그게 모든 언니들한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오피스면 오피스, 지역 뭐 강남이면 강남, 이렇게 한정돼있잖아요. 그게 참 그런 거 같애.

- 그런 업소가 있죠. 같은 업소가 똑같이 하면 좋은데 요런 업소가 있고 저런 업소가 있듯이.

- <언니들에게 필요한건 거의 완벽한 매칭 시스템> <2차 거부권> <그만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걸릴 것 없을 것> 제가 적었는데요. 거의를 쓴 거는, 완벽한이 없을 것 같아서 거의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만일 일을 한다면은 받고 싶은 손님이 있을 것 같아요. 도구는 어디까지 쓸건지.. (어응?) 체위는.. (어응?) 부끄러워요...*--* (아니, 괜찮아) (계속해) 체위는 어떤 체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때리거나 맞는 것도 어디까지 합의가 되는... *--*..(일동 웃음)

- 아니아니, 언니 지금 하는 얘기가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대일로 만나서,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주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조율해요. 하면서 과정에, 말을 맞추다가 '오빠 이걸 안돼' '이건 힘들어' 이렇게 있어서..

- 그런 게 결혼정보회사처럼, 미리 맞춤형으로.

-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게 꼭 이루어지진 않고, 서로 합의하에 2차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니가 먼저 깨냐 그럼 나도 너한테 돈 주기로 한 그 금액 다 못줘. 환불해줘. 막 이런 거.

- 옆으면 이제 저기로 가죠. 위반 시 사형!(일동 웃음) (즉결사형 인가요?) (일동 웃음) 저건 말 그대로 본인이 안 하고 싶을 때 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일 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런 게 자유로운거? 꼭 물리적 폭력이나 감금이 아니더라도 그만두지 못하거나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던가. 그런게 없이 자연스럽게.

- <무이자 대부업체? (장기저리...)>, <여성들만의 협동조합 같은것> 하도 빗문제 때문에, 사무실에서 장난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저리 대부업체, 언니들을 위한 대부업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생각해본 적 있거든요. 선불금이라는 그 메리트가 없으면 여성들은 이 일을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워낙에 빗문제가, 빗문제로 상담을 오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언니들 대부업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언니가 해요) (일동 웃음) 언니가 도망가도 사기죄로 걸지 않는 대부업체. (언니가 해줘요)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본 거고. 두 번째는 언니들만의 협동조합 같은 거. 노동조합일수 있는데 협동조합처럼 해서, 그게 저런 대부업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출자, 출자)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 난 비슷한 거 쓴 거 같은데 둘 다 저열해. <여성들의 모임>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재수없는 구매자나 업주를 쫓아가서 다 같이 응징하는(웃음) 나 성격 이상한가봐 아무튼. 해코지닷컴 같은걸 해가지고 밤에 쫓아가서 (칼로 처형하는 거야 총으로 하는거야) 바늘로 콕콕콕,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아 귀찮아 한방에 그냥)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 조합에서 논의해서(일동 웃음)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난 보낼 인간이 너무 많아서 한방에 해야 돼)

아무튼 그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건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는, 늘 나는 이 업주의 존재, 손님은 그래도 돈이라도 내지 도대체 업주는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말한 그런 시스템을 가진 업소라고 해도, 그걸 공동지분 형식으로 언니들이 운영비도 내고, 업주 이런 사람 없고 관리자가 필요하면 언니들이 고용하고, 그 사람들 부리고, 그 안에서 손님들 연결해주는 업무나 이런 걸 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언니가 사장이니까 쉬는 시간 10분 아니라 무조건 한명 손님 받고 1시간 이상 휴식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기본적으로, 5:5 너무 싫다고 얘기한 거처

럼, 5:5든 6:4든 7:3이든 난 다 싫고 그냥 안 주고 싶은 거야. 업주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 <선불금을 없애자> <성매매 여성의 환경을 바꾸자(성형, 다이어트 강요X)> <탈성매매 여성들 지원을 늘리고, 법률지원도 높이자> <성노동자에게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 맨 밑의 것만 하겠요. 위의 꺼는 다 논의된 얘기 같고. 성노동자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사장이 되잖아요.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지 노동으로서.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뭐 무슨 기업처럼 어느 정도 자기도 참여가 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손님들이 범죄가 일어났달지, 치안이랄지- 정부가 강력한 치안을 해준달지. 의료지원도 똑같이 보통사람들하고 병원 가는 일이 더 잦을 수가 있는데, 직업 특수상, 정부에서 금액을 좀 완화를 시켜준달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이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여성들이 만약에 일을 하면서 뭐 배우겠다,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등록금을 좀 낮춰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요구^{개인정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맘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게 저희한테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히는 건데. 그걸 받는 대신 가장 중요한 거를 뺏어간단 거죠, 원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 그런 것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저런 이야길 하는 거지 그거를 희생함으로써 이렇게 하자 그러는 건 절대 아니예요.

- 근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민증번호랑 그거를 구청에 이걸 갖다 보여줘야 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거. ‘니가 당장 이걸 배워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아니 성공하면 뭐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잖아요? 철저한 비밀이거든요? 나라에서 만약 감사가 있다할지라도 검찰이 내 나라 해도 이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딱 적혀있어요. 우리한테 딱 명시를 해줘요. 만약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단체의, 그게 들어와야돼서 정보를 제공해라- 검찰이 압수수색하더라도 우리의 정보는 안 되게끔 법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적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보관하시냐고. 구청에 낸대요. 보험회사랑 비슷한 거야. 보험도 충분히 설명 안 해주고, 나쁜 거 얘기 안 해주고,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싸인해'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본 콘돔 제공하라 + 개념도!> 건강검진 같은 거 의무로 하게하고 지원도 하잖아요. 근데 왜 성병관련해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걸까. 그거 되게 정말 중요한거라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안 돼서 안 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거 같아요. 언니들 일 하실 때 성병검진 같은거 필요한데, 그들에게만 특별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별의 벽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성병은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거고 왜 그걸 특별히 하는 건 마치 그들이 질병을 퍼뜨린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화하고, 콘돔 사용교육 제대로 시키고. 그런 것만 해도 폭력이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모두의 문제잖아요.

-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하는 단계별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 못한 것이 뭐냐면 티켓다방 아가씨한테도 STD^{성병검사}를 강요를 해요. 질 검사를 강요를 하죠. 저같은 경우는 제가 다방에 왔는데, 공식적인 다방은 매매업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STD를 시키냐고요 내 말은. 그래가 그걸 한번 따지고 넘어갔어요. 보건소에 가가지고. 왜 우리가 STD를 해야 됩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니까 간염 같은 거 그런 거 검사를 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에 한번씩 가갖고 우리도 검사를 해야돼요. 거기 일명 말하면, 눈감고 자기들이 인정한다는거, 성매매를. 그래놓고 우리한테 단속을 하고 잡으러 다니고 우

릴 더 탄압을 하잖아요. OO씨 말한 것처럼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구매자들이 더 옮기잖아요) 남자들이 더 그런데 우리한테만.

썸8. 오, 아름다운 마무리!

- <넘어질 수도 있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손 잡아줄게^_^ 우리 같이 걸어가자♡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게, 저 일할 때 보면 언니들이 되게 그만두고 싶어 해요. 사실 빛도 없고 남들이 봤을 때는 '빛도 없는데 그냥 그만 두면 되지' 근데 그 언니들 솔직히 쉼터에 대한 불안감? 믿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 보면, 나 지금 뭔가 하고 싶고, 일반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런 의지 같은 거. 또 나를 누군가가 비난하지 않을까? 너 그런 일 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물론 상담소들이나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언니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 궁금한데 물어볼 순 없는 무언의.. 삼촌들 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않게.

네, 많이 다니겠습니다.(일동 웃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다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여성의 힘이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요. 그리고 우리 자꾸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고 힘이 나는데,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수다회 공유한 것들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못 다한 이야기는 뒤풀이에서 나눕시다.

<닥치고 듣기>

앗, 이런 저렴한 말을 쓰다니.. ㅋㅋ

사실 '닥치고'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새삼 생각하는 요즘이에요.

닥치고 정치, 닥치고 투표 같은 말들은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행동으로 돌진하라는 말이라 거북스럽거든요.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기'란, 다른 존재에 대한 긍정과 좀 더 평등한 관계를 가지

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판매 여성은 어떻게 차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당사자들과 생생한 수다를 떨면서, 일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희망프로젝트가 나올 듯한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가족구성, 노동, 경제, 주거,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권리들부터 피해자를 넘어서서 차별에 주눅 들지 않고 맞짖 뜰 수 있는 용기 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상해보고 만들어 가야 겠습니다.

3차 수다회로 이름의 수다회가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

이루머들의 수다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라, 개봉박두. 두둥~